

The Users

대상정보기술

대상정보기술이 통합 미들웨어 솔루션 '오라클 퓨전미들웨어'로 SOA 및 관련 시장에 진출한다.

대상정보기술은 최근 컨설턴트 및 기술영업 등 전담인원을 영입하여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포탈 구축 전문업체인 올클리프와 비즈니스 협력계약을 체결,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사업 활성화를 기간으로서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여 솔루션을 대외에 알리는 동시에 BPM, IDM, RFID 업체와도 파트너 계약을 체결, 협력 업체와의 엔지니어 Pool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근 출시한 Oracle SOA Suite은 100% 표준 기반의 SOA 패키지로서 최적의 호환성으로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와도 완벽하게 호환되어 쉽고 빠르게 SOA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대상정보기술의 손동찬 솔루션사업본부장은 "그 동안 대상정보기술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 벤더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사업도 솔루션 비즈니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면 당사의 전략 아이템 솔루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상정보기술은 올해 IT 서비스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그룹의 IT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ERP 솔루션 영업을 강화하고자 별도의 사업본부 아래, 컨설팅 영업팀, 컨설팅 실행팀을 신설하여 편제하였다. 또한 솔루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신규 솔루션 전담 사업부서 퓨전 미들웨어 사업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사업본부를 새롭게 재편 미디어솔루션사업팀 등 대외사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졸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여 각 사업부서에 배치시켜 활력을 불어넣는 조직의 Refresh화를 추구하였다.

코오롱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은 지난 2월 2일 미국 산호세에 본사를 둔 애실론(Echelon)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이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론웍스(LonWorks)기술을 자체 보유 IT기술과 접목시켜 유비쿼터스 환경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에너지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양사는 '론웍스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고, 애실론사가 개발한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인 NES(Networked Energy Service)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애실론사의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인 NES(Networked Energy Service)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력선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격검침 기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이태리 2천 7백만 가구에 적용된 바 있다. 코오롱정보통신은 이를 국산화하는 한편 애실론사와 협력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계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한한 애실론사 켄 오슈만(Ken Oshman) 회장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코오롱 정보통신과의 제휴로 양사가 유비쿼터스 선도 기업으로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론웍스 기술의 보급으로 코오롱정보통신과 많은 한국 기업들이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경쟁 시대에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국 T P M

한국TPM은 2006년 중국의 UPS 제조업체인 Royal Tech와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UPS 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한국 TPM은 Royal Tech의 한국 지사로서 한국 내 UPS 판매망 구축 및 국내 UPS 제조 업체와 OEM Partner 계약을 통하여 중저가 UPS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2005년 9월부터 CNC Router 판매 및 CAD/CAM 사업을 추가하여 삼성 반도체 및 LG 필립스의 협력업체와 대한 항공등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신세계 I&C 등 전문 SI 업체와도 무선랜 사업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가지며 사업 분야를 계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임원 인사동정 대성그룹 컴퓨터시스템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이돈기 상무이사 부임

오 픈 베 이 스

오픈베이스는 자사 검색솔루션인 엑스텐(XTEN) Ver 3.0이 기업용 정보검색솔루션 업계 최초로 2006년 1월 11일자로, GS (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했다.

금번에 GS인증 받은 정보검색솔루션 엑스텐 Ver 3.0은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기존 검색 처리 용량보다 더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혼합 정렬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유연한 정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필드별 색인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검색 결과 품질을 이전 버전에서보다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다.

(주)오픈베이스는 그동안 엑스텐을 통해 천리안, 다음커뮤니케이션, 버디버디 등에 이르는 포털 대상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을 비롯하여,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G4B 포털, 과학문화재단, 대법원 판결문 검색 사업, 중앙부처 자료관사업 등 공공기관에도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색의 난이도가 높고 더욱 정교한 검색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특허 검색 사이트인 웹스와 위즈도메인의 특허 검색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오픈베이스는 최근에 네이트닷컴, LG텔레콤, 싸이월드, 멜론에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올해 1월, 미국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사의 뮤직 온디맨드 음악 통합 검색 서비스 프로젝트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픈베이스 윤봉섭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은 "엑스텐의 업계 최초 GS인증을 통해, 향후 공공 기관의 검색 관련 사업 및 자료관 사업에서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단지 국산 소프트웨어라서 권장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품질이 우수한 국산 소프트웨어를 까다롭게 선별해나감으로써 국산 소프트웨어의 명품화,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솔루션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중추적 역할을 GS인증이 해 나가주길 기대해본다." 라고 이번 GS인증에 대한 의의와 바람을 밝혔다.

펜 타 시 큐 리 티 시 스템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는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가 가능한 통합형 DB보안 솔루션인 D'Amo(디아모)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Good Software)인증 획득했다.

지난 2004년 3월 출시한 D'Amo(디아모)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킨 2.0 버전을 일본과 동시에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디아모 고객사의 AS 마케팅(애프터서비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피콜' (Happy Call)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타시큐리티 이석우 사장은 "디아모는 이번 인증을 통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 혜택을 통한 매출증대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금융업계에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인 '외플' 과도 연계해 통합보안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D'Amo(디아모)는 현재 산림청, 재외동포재단, 데이콤, 한국도로공사, 우리홈쇼핑, 일산병원 등 국내 및 일본시장에서 약 100여 사이트에 공급되었다.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후원사 단신코너입니다.

앞으로 후원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